

컴퓨터와 개인능력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계의 컴퓨터 활용의 다양성은 이미 놀랄만한 것이 못된다. 컴퓨터가 과학적인 계산과 분석에만 이용되리라는 사람들의 관념은 이미 깨진지 오래다. 환자진단, 교통정보, 음악, 무대예술, 애니메이션, 증권, 미용, 경마, 시력측정, 결혼중매, 스포츠게임분석, 완구도안, 세탁, 의상디자인 등 간단한 것으로부터 홈 오토메이션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속에 컴퓨터가 속속 침투해 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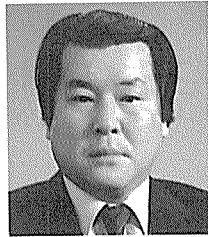
이런 문화생활공간외에도 컴퓨터는 정치·경제·국방·행정 등 그 활용범위가 무한하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이를테면 K 라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국회의원으로 진출하기전, 정치라고는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다만 정통 프로그래머 출신이었던 그가 정치에 뜻을 두게 된것도 어디까지나 어떠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 보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비롯되었다.

그의 출신지는 농촌. 농민들은 순박하고 인정에 약하며, 또한 과학적 계산이 주는 모든 결과에 민감하기 마련이다.

제일 먼저 그는 주민들에게 워드프로세서를 이용, 모두 내용이 다른 수만통의 인사편지를 보낸다. 물론 이 편지는 선거구의 인적사항, 토지구획, 지역관계와 특성 등, 자료



민경현

(주)민컴 대표이사

들을 모두 입력시킨 것을 토대로 짠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다음은 선거구의 모든 유통관계, 농사정보 등도 조사, 관할 관청이 일괄적으로 수립한 제반 행정계획이 허구임을 폭로한다. 대신, 그는 집집마다의 유효노동력, 토지와 영농기계, 농자금, 기후 및 수리 등, 개인의 필요성에 부합할 수 있는 일년간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취합, 분석하여 각 가정에 제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품종개량과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각종 정보제공 그리고 주민들의 축일과 기일에는 빠짐없이 경의와 조의를 표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파고드는 것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의 접촉을 확대하여 마침내 그는 선거의 막바지 전략으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투표지역을 정확히 파악, 최후의 집중공세를 펼 수 있는 계산도 해낼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컴퓨터 기능만 가지고는 얼마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하드웨어의 성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다. 인간의 능력이 무한한만큼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한 끝이 없는 것이다.